



INCHEON AIRPORT MAGAZINE

MORE & BEYOND

JANUARY+FEBRUARY

Vol.90



내일을 향하는 희망의 꿈 새해를 맞이하며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모두에게 다른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365일이 주어졌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많은 이들은 저마다의 계획과 목표를 다잡으며 다가올 날들에 대한 경외심과 설렘을 갖게 되죠. 여러분의 새해 시작은 어떠셨는지요. ‘재테크’ ‘주식’ ‘투자’ ‘외국어 공부’ ‘부동산’ ‘운동’ ‘금연’ ‘다이어트’ ‘건강’이 단어 중에 독자 여러분의 새해 계획이 들어 있을까요? 소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새해 키워드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이 ‘여행’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여행에 대한 갈증을 느꼈고, 그렇기에 지난해 폭발적인 여행객 증가로 인천국제공항 역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이들이 여행으로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분명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많은 이들이 눈길 닿는 곳마다 스마트한 디지털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는 공항의 모습에 놀라고 즐거워하시리라 믿습니다.

“용감한 사람도 꿈을 잃어버리면 나락으로 떨어져 공허함에 휩싸일 것이다. 인생은 여행과 같고 꿈은 여행 지도와 같다.”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하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이 행복이며, 꿈을 간직하고 있는 한 불행은 없다고 했습니다. 영험한 기운을 품은 청룡의 해, 갑진년(甲辰年) 2024년에는 모든 분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희망을 꿈꾸고, 원하는 소망을 이루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ONTENTS

MORE&BEYOND
2024 JANUARY+FEbruary
VOL.90

인천국제공항 매거진
MORE&BEYOND
2023 JANUARY+FEbruary / VOL.90
격월간(비매품)

등록번호 인천중, 바00008
발행처 인천국제공항공사
발행인 이학재
발행일 2024년 1월 22일
담당 부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실 032-741-2115
기획·디자인 및 제작
경성미디어그룹 02-786-2999



PLUS I CULTURE & LIFE

04
ABOUT OF AIRPORT
날아라 희망의 내일을 향해
2024 인천국제공항

12
AIRPORT PEOPLE
2024 청룡의 해,
용띠들의 새해 소망

28
ISSUE
연간 여객 1억 명 시대를 준비하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36
CULTURE
떠나요, 이야기로 만나는
인천국제공항 주변 섬 여행



44
VACATION
국내 최대 규모 복합 리조트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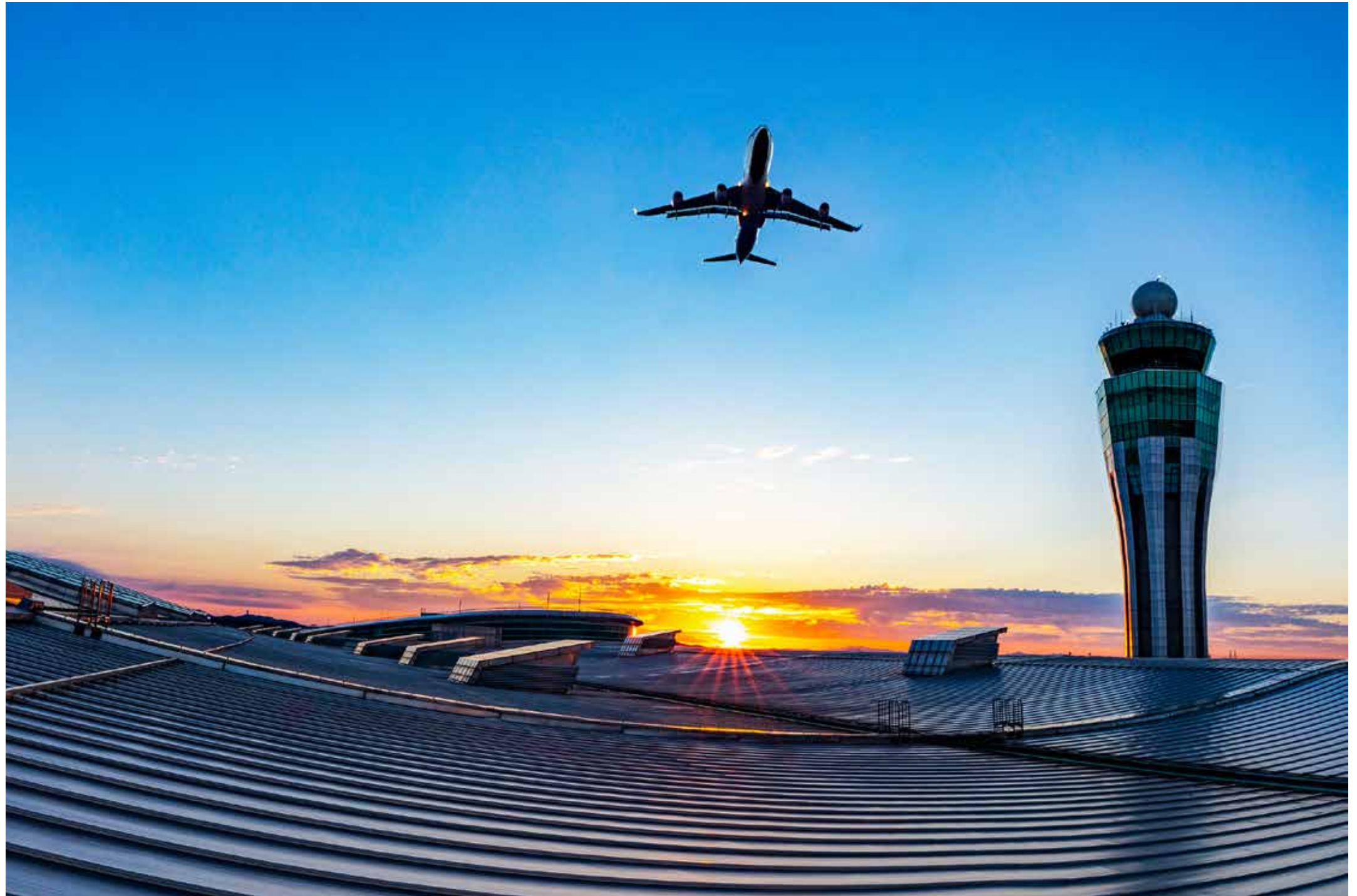
50
TREND
청룡의 해,
용의 눈으로 보라

54
SURVEY
2023 해외여행 경험
2024 해외여행 계획

56
ESSAY
통념 대신 신념,
매달 열흘씩 여행하는 삶에 대해

날아라 희망의 내일을 향해 2024 인천국제공항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모두가 사랑하는 여행을 위한 바로 그곳.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늘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다. 청룡의 해, 갑진년은 ‘디지털 대전환 원년’과 ‘4단계 확장 사업’의 결실을 볼 수 있어 더욱 기대된다. 희망과 도전의 한 해를 바라며, 인천국제공항의 특별한 순간을 마음에 담아보자.





불야성의 도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절대 꺼지지 않는 불야성을 이루는 공항. 이곳의 시계는 일상의 무게와는 다르게 느껴진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아침 해가 뜨기 전에도 공항은 늘 분주하고, 비행기는 출발을 재촉한다. 공항은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살아 움직인다. 공항을 스쳐 지나가는 여행객뿐 아니라 이곳을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내 인생의 활주로

엄청난 무게의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주로를 필요하다. 하늘을 나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인데, 이는 우리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내 안의 활주로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절치부심한 용이 결국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오르는 과정에도 활주로는 필요했을 것이다. 갑진년을 맞아 저마다 목표를 세우고, 활주로를 달려 도움닫기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본다.



청룡이 나르샤 희망과 도전을 의미하는 2024 청룡의 해 용띠들의 새해 소망



용은 예로부터 행운과 풍요, 번영을 가져오는 자비로운 존재로 수호자의 의미를 지녔다. 또한 다른 동물과 달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로 신화와 전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뱀이나 이무기 등이 여의주를 얻어 용으로 변해 승천하면 완전한 신으로 자리 잡는 것처럼 2024년을 오롯이 자신의 해로 만들 용띠 사람들을 공항에서 만났다.

글. 김시웅 사진. 이해리, 지다영



이학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0대 사장으로 취임 이후 첫 번째 풀타임 경영의 해를 맞은 이학재 사장은 1964년생으로 공사를 대표하는 용띠 인물이다. 인천국제공항의 디지털 전환 원년을 선언한 이학재 사장과와의 일문일답.

Q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임 2년 차, 온전한 1년을 경영하게 되는 첫해가 본인의 해인 용의 해인데, 새해 경영 목표 또는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년 전체를 이끌어갈 첫해가 마침 용의 해인데, 저는 사람들이 용이라는 신비로운 동물을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인천국제공항을 사람들이 항상 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도입한 ‘스마트패스’와 같은 디지털 스마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디지털 대전환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또한 길고 어두웠던 코로나19라는 터널 속에서 우리는 공항이 직접 경제를 이끌어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항 경제권’ 구축의 중요성을 깨달았기에, 공항 연계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공항 경제’ 부흥에 앞장설 것입니다.

저는 용의 해를 맞아 고대 설화에 나오는 수레를 끄는 용과 같이 인천국제공항을 끌고 가는 한 마리 용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용이 승천하듯 인천국제공항이 더 힘찬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고, 세계 속의 최고 공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모습,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Q 2024년 인천국제공항은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변화를 앞두고 있나요?

길었던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이

2024년 4단계 건설 사업 완료를 앞둔 만큼 인천국제공항을 ‘5성급 공항’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달라졌고, 특히나 항공 산업과 공항은 그야말로 어두운 터널을 경험했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는 인천국제공항 미래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 서비스 공항의 증표인 '5성급 공항'이라는 타이틀을 계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 같은 공항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더욱 장려해 인천국제공항과 함께하는 일상의 순간순간이 여행이 되는 공간으로 변모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염원하던 4단계 건설 사업 완료와 함께 제2여객터미널이 완성되고, 연간 1억 명을 처리하는 공항으로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시설과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고 공항 중 하나로 올라설 것입니다. 올해, 제2여객터미널까지 완성된 새로운 인천국제공항을 기대해주시고.

Q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슬기롭게 보낸 뒤, 2036년 병진년 적룡의 해를 맞이할 인천국제공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는 여객의 신분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방문하시게 되겠죠?

제가 상상하는 12년 뒤, 다음 용의 해 인천국제공항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일상이 여행이 되는 공간 구현을 통해 세계 공항 산업의 표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공항, 글로벌 K-컬처의 관문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인천국제공항에 여객으로 왔을 때, 이갈

이 우수한 공항을 이끌었던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들에게 자랑하며 인천국제공항의 매력 넘치는 공간과 서비스를 안내할 것 같습니다.

Q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근무하는 만큼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이 누구보다 손쉬울 텐데, 휴가 계획이나 독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주변에서도 공항공사 취임 이후 부쩍 여행에 관해 물어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휴가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늘 그 부분이 미안하지요. 공항에서 마주하는 여객들의 즐거운 표정을 보면 그 행복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올해는 꼭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기분을 만끽할 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목적지는 베트남의 다낭이 어떨까 합니다. 여행하기에 날씨도 좋고, 음식이나 관광 인프라도 편리하다며 다녀오신 분들도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Q 인천국제공항의 지역사회와 밀접한 ESG 경영뿐 아니라 사장님 개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 활동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SNS 채널과 관련한 목표가 있을까요?

제가 맡고 있는 이 자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인천국제공항을 만들기 위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공항은 단순한 교통 시설이 아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 순간 공항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유기적인 공간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역할이죠.

개인 인스타그램(@incheonman) 역시 인천국제공항을 대표하는 사장 이학재의 모습은 물론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간 이학재의 모습도 가감 없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여객분과 소통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하여 여러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 하니 '팔로우'와 '좋아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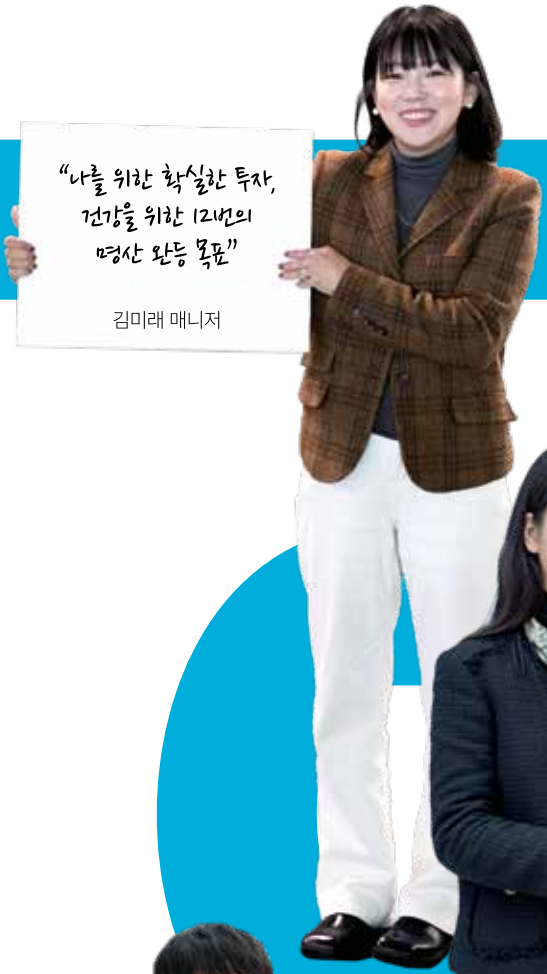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MORE&BEYOND> 독자들에게 신년 인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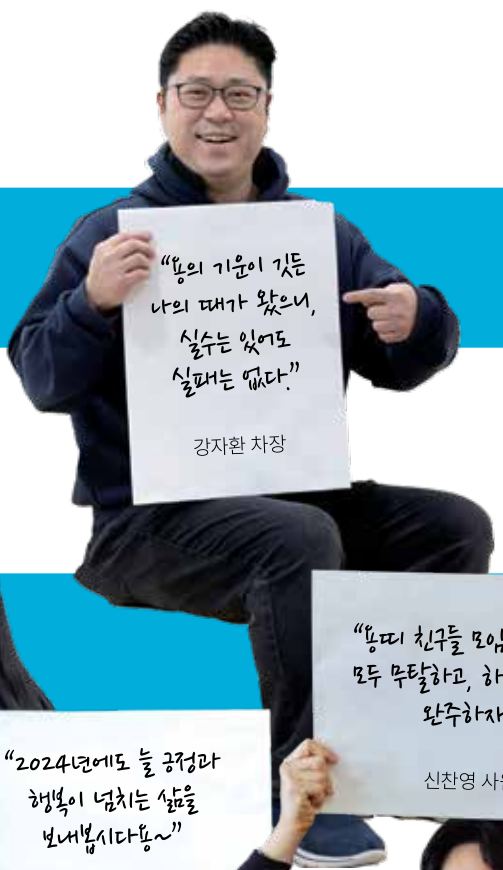
서해의 작은 섬을 메워 오늘날 세계적인 공항으로 거듭났으며, 다시 한번 비상하기 위한 날갯짓을 준비하는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은 마치 우리 설화에 나오는 이무기가 갓은 고난을 이겨내고 용이 되어 승천하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청룡의 기운으로 도약하며 세계의 중심 공항이 될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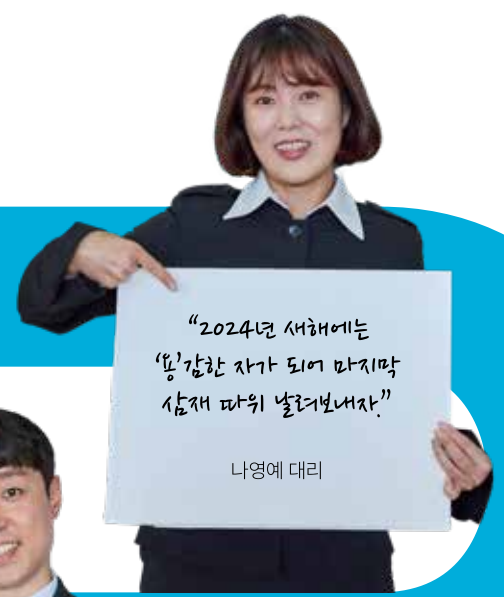
“나를 위한 확실한 투자,
건강을 위한 121번의
명산 완능 목표”
김미래 매니저



“똥의 기운이 깊은
나의 때가 왔으니,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강자환 차장



“똥피 아기가, 네가
건강히 오기만을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남민지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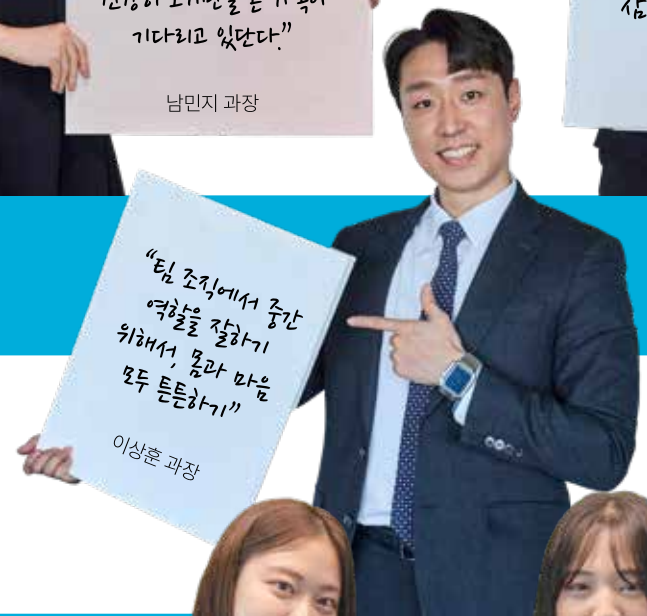
“2024년 새해에는
‘똥’감한 자가 되어 마지막
삼순재 따위 날려보내자.”
나영예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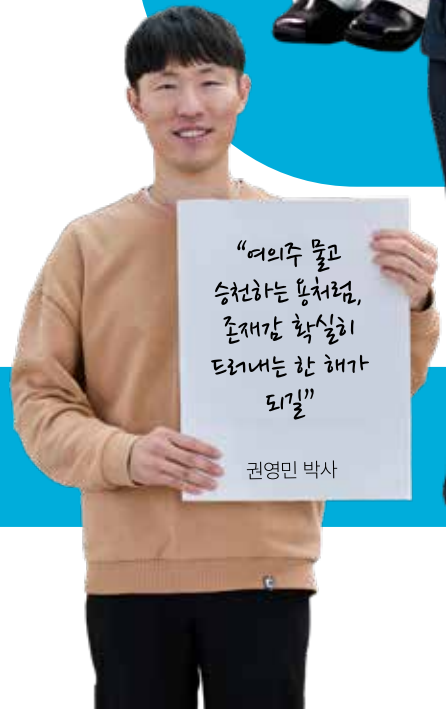
“2024년에도 늘 긍정과
행복이 넘치는 살로를
보내봅시다옹~”
고영주 파트장



“똥피 친구들 모임 ‘진사회’
모두 무탈하고, 하트 마라톤
완주하자.”
신찬영 사원



“팀 조직에서 중간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
모두 튼튼하기”
이상훈 과장



“여의주 물고
승천하는 똥처럼,
존재감 확실하게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길”
권영민 박사



“청룡의 해, 똥피 신입 사원이
되어서 다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에서 만나자.”
심진규 김시아 인턴

강자환 차장 인천국제공항공사 디지털전환수준진단 TF팀

미래를 향하는 인천국제공항의 디지털 대전환 행보에 주축이 되는 강자환 차장은 디지털전환수준진단 TF팀에서 근무 중이다. 공항공사 16년 차인 용띠 강 차장의 신년 다짐과 가족을 향하는 애정 어린 진심을 담았다.

Q 용띠로서 용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이 나 다짐이 궁금합니다.

태어나서 벌써 네 번째 맞이하는 용의 해입니다. 아무래도 지난번까지는 청춘이라고 우겼지만, 이제는 좀 더 진중하게 인생의 절반을 향해 가는 시기가 되었네요.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 ‘회복 탄력성’이 절실합니다.

Q 사내에서 ‘용’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장이신 이학재 사장님이죠. 청룡을 보필하는 용의 무리 중 하나로 2024년 공사가 선포한 ‘디지털 대전환’ 계획에 미약하나마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내 용띠 클럽이라도 만들어볼까 합니다. 나이 상관없이 특별 모임을 하다 보면 서로 소통도 쉽고, 부서 별 교류도 활발해질 것 같네요. 깨어나라, 인천국제공항의 잠룡들이여! 함께 나아갑시다.

Q 2024년에 담당하는 업무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은 어떤 변화를 선보일까요?

지금도 활발하게 공항을 누비고 있는 로봇 ‘에어스타’뿐 아니라 탑승권, 여권을 생체 정보로 대신하는 ‘스마트패

스’ 등 공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인천국제공항이 2024년 4단계 건설 사업 마무리와 함께 완벽한 회복과 도약의 한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이용할 때마다 점점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에 감동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Q 본인과 가족에게 새해 인사를 남겨주세요.

모름지기 용도 여의주를 물기 전까지 고난을 겪었을 겁니다. 자신의 편견이나 한계를 벗어나야만 비로소 승천해 진짜 용이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있지만, 건강 챙기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도 살아가는 데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올 한 해 용띠 아빠 믿고 잘 살아봅시다.



나영에 대리 대한항공 탑승수속팀



Q 항공사 직원으로서 여행의 기술이 남다를 것 같은데 올해 떠나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항공사에 근무하며 매일 공항으로 출퇴근하지만 정작 나를 위한 여행에는 인색했던 것 같아요. 올해의 시작을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계절인 호주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추운 한국에서 출발해 따뜻한 호주에서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면 색다른 기분을 느끼는 한편,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충전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Q 공항에서 업무를 하다가 느낀 ‘인천국제공항 이런 부분이 필요해’는 무엇일까요?

승객들의 탑승 수속을 담당하다 보면 여행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찮아 동반하지 못하는 경우 공항 내에 반려동물을 맡아줄 ‘애견 호텔’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어 좀 더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Q 올해 항공사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꿀팁이 있을까요?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자격증 준비와 동시에 아무래도 고객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업종이므로 서비스 정신, 상황 대처 능력 등 나만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면접 준비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의 해에 새롭게 입사할 후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을 찾는 사람은 대부분 여행에 대한 기대를 안고서 온다. 진짜 여행의 시작인 비행기 탑승을 위해 세심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11년 차 항공사 소속 나영에 대리. 여행을 사랑하는 만큼 공항도 사랑하는 용띠가 바라는 올해 버킷 리스트를 들어보았다.

Q 본인에게 2024년 용의 해는 어떤 의미인가요?

‘푸른색’이 의미하는 희망과 오롯한 나의 날들이 펼쳐질 ‘용’이 만난 ‘청룡의 해’는 특히나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으로 다가옵니다. 올해는 무엇을 계획하고 다짐해도 다 이뤄질 것 같아 설렙니다.

신찬영 사원 인천국제공항보안 T2보안검색본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이라면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신찬영 사원을 만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공항 보안 기업 소속으로 보안 경비와 검색을 중점 업무로 수행 중이기 때문이다.

Q 용띠로서 갑진년을 맞이하는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느 해와는 다른 새해 다짐 또는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제가 태어난 1988년도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올림픽이 열렸고, 국가적으로도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된 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네 번째, 인생에서 가장 활발한 성과를 향해 달려갈 36세를 맞이하는 용의 해인 만큼 승천하는 용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장 바쁜 시기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024년에는 하프 마라톤 완주하기,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하기 등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고 성장해가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Q 용의 해를 맞아 용을 타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요?

오, 생각만으로도 짜릿한데요. 만약 용을 타고 갈 수 있다면 집에서부터 바로 출발하고 싶습니다. 공항 출입국 검색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이 갈 수 있을 테니



까요!(웃음) 그리고 나라를 곁자면 벨기에에 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여름에 벨기에를 다녀왔는데 지인들에게 선물할 기념품을 호텔에 두고 왔거든요. 그거 찾으러 잠깐 다녀오고 싶네요!

Q 현재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근무해보고 싶은 공항 내 항공 직군은 무엇인가요?

승객을 태우고 커다란 비행기를 운행하는 파일럿도 좋지만, 저는 비행기를 고치는 항공 정비사 업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막연한 생각이지만 비행기 고치는 일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정비한 비행기가 안전하게 비행하는 걸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벅찰 것 같습니다.

Q 인천국제공항을 움직이는 많은 자회사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보안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공항 이용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공항 내 거의 모든 곳에 근무지가 있어 공항 터미널 내부는 물론 외곽까지 어느 곳이든 무슨 일이든 다 알 수 있습니다. 미처 직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일지라도 상황실에서 사각지대 없이 CCTV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저희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최상의 항공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주 파트장 현대백화점면세점 SCM팀 인천국제공항점 운영파트

여행의 시작은 면세 쇼핑부터라고 생각하는 독자라면 고영주 파트장이 속해 있는 면세파트 SCM팀의 물류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Q 청룡의 기운 가득한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용띠로서 용의 해를 맞으며 특별한 목표가 있나요?

2024년 갑진년은 청룡의 해인 만큼 희망과 성장, 행운이 가득할 거란 기대와 확신이 들더라고요. 2023년 인천국제공항에 입성한 이래 3분기 사상 첫 흑자를 달성하면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확실한 잠룡임을 증명했습니다. 올해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승천하는 용의 기운으로 더욱 비상할 수 있도록 면세점의 중심이 될 최상급 물류 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Q 인천국제공항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와 물류 전문가로서 예측하는 2024년 인기 상품군은 무엇인가요?

프리미엄 유통사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도 럭셔리 브랜드 라인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샤넬과 루이비통은 현대백화점면세점에서만 만날 수 있고 프라다, 티파니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 매장과 편집숍이 입점해 백화점과 동일한 서비스를 면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회복과 더불어 출국하는 내국인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입으로 K-푸드와



K-캐릭터의 인기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물류기업의 특징과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면세점과 일반 물류기업의 특징이라면 면세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입고되기 때문에 상품 이동 시 실시간으로 관할 세관에 이력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은 만큼 물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면세품은 고객에게는 면세 쇼핑의 즐거움이 되고, 물류업체로서는 운송과 무역 관련 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항공사 화물을 관리하는 물류팀 업무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부터 각각의 물류 창고로 어떻게 이동되는지 궁금하거든요.

Q 인천국제공항 근무자로서 2024년에 공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항 근무자의 경우 오래 근속한 분들은 대부분 공항 근처에 거주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통근하기도 합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상주 직원 전용 출퇴근 통합 버스를 운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올 한 해도 공항 내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직군의 근무자들과 언제나 활짝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남민지 과장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귀빈실운영사업부 홍보지원팀



남민지 과장 본인은 토끼띠지만 청룡의 해, 새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2024년을 시작하는 그와 나눈 이야기.

Q 근무하고 계시는 ‘인천국제공항운영서비스-홍보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인천국제공항 홍보전망대는 제2터미널의 명소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역사와 홍보는 물론 계류장이 시원하게 보이는 전망대와 카페까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소개 정기 브리핑은 매일 오후 2시, 4시 총 2회 진행하니 많이 찾아주세요.

Q 본인은 토끼띠지만 올해를 용띠 아기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룡맘이 되시는 것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둘째 소식에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서 감사한 날들입니다. 가족의 경사이자 요즘 같은 시절에는 애국자라는 덕

담도 들고 있으니까요. 가장 큰 바람은 아기를 만날 때까지 무탈할 것과, 청룡의 기운을 가득 담은 용기 있고 열정적인 용띠 아이를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Q 청룡맘에게 용을 타고 원하는 곳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꼭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요?

거리가 멀어 꿈도 못 꿰던 칸쿤을 가보고 싶어요. 용을 타고 간다면 우리 네 식구 모두 지루한 비행시간도, 환승도 없이 구름 속을 함께 날아다니겠죠. 꿈은 클수록, 현실적으로 풀수록 실현 가능해지지 않나요. 첫째 아이에게 용을 닮은 비행기를 그려달라고 해야겠네요.(웃음)

Q 장기간 공항에 근무하며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를 봐왔을 텐데, 그중 아이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이 있나요?

거대한 도시를 연상케 하는 공항을 움직이는 일에 정말 다양한 직군이 있지만 저 자신도 무척 되고 싶었던 파일럿을 권하고 싶습니다. 직업을 통해 다양한 나라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2024년, 더 나은 나를 위해 실천하고 싶은 다짐이 있을까요?

새 식구를 맞이하는 일은 너무 행복하지만,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육아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나’를 잊기 쉽더라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것이 육아와 일, 가정과 나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육아지만, 경력자인 만큼 슬기롭게 잘 해내보겠습니다.

이상훈 과장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귀빈실운영사업부 홍보지원팀

인천국제공항의 명소로 이미 소문이 자자한 홍보전망대는 비행기가 심 없이 뜨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카페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역사와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일반 시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는 국내외 귀빈들의 단골 방문 장소다. 이상훈 과장은 공항의 얼굴인 이곳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다.

Q 공항의 여러 직무 중에서 인천국제공항 홍보전망대에서 근무하는 소감은 어떤가요?

공항의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을 응대해야 하는 홍보관 업무는 특히 투철한 서비스 정신이 기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보전망대를 찾아주시고, 맛있는 커피 한잔을 즐기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만큼, 홍보전망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홍보관과 역사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항 각 부처나 외부 기관의 회의 장소 제공, 공항 건설 과정과 시설에 대한 브리핑 진행이 주 업무이며, 공항 전경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분들도 친절히 응대하고 있습니다.

Q 용띠로서 맞이하는 용의 해는 어떤가요? 새해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은 청룡의 해라 더 뜻깊은 것도 있고 용띠에게는 용의 기운을 받아 날삼재가 복삼재로 돌아오는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3년은 놀삼재로 개인적으로는 사건사고가 많은 해였어요. 2024년에는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청룡의 좋은 기운을 받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복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생각만이 아닌 좀 더 몸을 움직여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퇴근 후 한 시간씩 홈트를 하는 운동 루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잠시 쉬고 있었던 달리기도 다시 시작해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갖추려 합니다.

Q 홍보지원팀 8년 차인 만큼 조직에서도 과장으로서 역할이 클 텐데, 나만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 팀은 무엇인가요?

업무는 늘 배움의 연속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가 일반 방문객부터 국내외 귀빈에게 인천국제공항의 여러 면모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므로 공항 내외부 소식에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뉴스나 신문도 잘 챙겨 보고, 업계 동향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대면 서비스 업무이다 보니 늘 청결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을 위해 자기 관리도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민 박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산업기술연구원 정책연구팀



지금 세계 공항업계는 치열한 경쟁 중이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스마트 공항을 완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공항에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권영민 박사가 소속된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이 있다.

Q 용의 해를 맞이하면서 옹띠로서 올해 목표가 궁금합니다.

새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 없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택시 승하차 지점에 대한 공간 분포 분석, 주차장-톨게이트 가명 정보 결합을 통한 자가용 통행 특성 분석, 사고 다발 지점 선정 및 개선 방안 연구 등 인천국제공항 접근 교통과 관련된 재밌고 다양한 연구 주제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행할 계획입니다. 도출된 연구 결과물이 공항의 접근성 개선과 여객들의 편의성 향상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결과물은 대외 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야 하기에 공사 부서뿐 아니라 항공 분야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대외적 인지도를 쌓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Q 인천국제공항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전략적 경영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 핵심 시설 제품의 국산화,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 및 고객 편의성 제고, 미래 항공 산업 기반 등과 관련된 기술 연구는 물론 공항 운영과 관련된 경영·정책 분야 연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인 공항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2024년 새해에 예정된 연구 주제 중 가장 기대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공 분야인 교통공학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 및 교통 체계 다각화 등 교통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활용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접근 교통 분야 연구 수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여객들의 출발지-목적지 등과 관련된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연구 결과를 공항 리무진 배차 효율화, 공항 철도 영향 분석 등 인천국제공항 접근 교통 계획 수립에 활용해 공항을 찾는 여객들의 편리함을 더하고자 합니다.

김미래 파트장 워커히호텔앤리조트 대외지원팀

공항에서부터 설레는 여행의 기분을 만끽하고 싶다면 라운지와 공항 내 환승호텔을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인천국제공항 근무 14년 차 김미래 파트장이 공개하는 공항 이용 꿀팁도 놓치지 말 것.

Q 옹띠로서 용의 해를 맞는 소감, 다짐 또는 목표를 알려주세요.

매년 맞이하는 새해지만, 십이간지를 돌아 마주한 옹띠해라고 하니 여느 새해보다는 좀 더 특별한 느낌입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무엇보다 옷이 저에게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건강, 역량 등 현재의 저보다 한 단계 레벨 업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공항에서 일하면서 관심 가는 공항 근무 직군이 궁금합니다. 또한 장기 근속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도 공개해주세요.

세계 여러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승무원이나 항공사 업무를 직접 운영하는 지원 사무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처음 공항 근무는 F&B 매장에서 시작했고, 그 경험으로 현재 업장과 고객, 근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다음 스텝을 위해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때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획했던 제1여객터미널 환승호텔과 마티나 라운지 동편 리뉴얼 오픈 이벤트처럼 올해도 워커히호텔앤리조트의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려 합니다. 여객뿐 아니라 상주 직원과의 접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공항 이용 시 워커히 환승호텔 및 마티나 라운지 이용 꿀팁이 있을까요?

마티나 라운지의 경우 어린이 고객(36개월 이상~만 10세 미만)은 정가 USD 17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SKT 멤버십이라면 멤버십 등급에 상관없이 20% 할인되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이 많더라고요! 또한 제1여객터미널 마티나 라운지 동편에서는 샤워실과 안마 의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승호텔 역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기분도 컨디션도 최상으로 끌어올려 여행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심진규·김시아 인천국제공항공사 2023년 인턴

첫 번째 사회생활의 시작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작한 두 사람은 올해 25세가 되는 2000년생 용띠다. 일명 '밀레니엄 베이비'로 활기차고 도전하는 만큼 성취력도 높은 기운을 타고났다. 2023년 인턴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신입 사원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눴다.

Q 어떤 대답이 나올지 예상되지만, 그래도 말하는 대로 이뤄진다고 하니까 두 분의 새해 소망을 공표해주세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당당히 신입 사원으로 취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턴십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명확하게 취업과 면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른 곳에 한눈팔 필요 없이 정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Q 6개월간의 인턴십 경험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심진규_ 인턴 근무 이전에는 공항은 단순히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거치는 곳이었는데, 멋진 공항 전경을 만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에 에어사이드까지 출입하면서 그야말로 공항 곳곳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완전히 공항 전문가로 통한답니다.

김시아_ 건설기획처 공항계획팀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체험형 근무 형태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좋았고, 다른 주요 해외 공항 리서치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번 인천국제공항의 우수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Q 인턴 근무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김시아_ 전사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타 부서와 교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공기업의 딱딱함이나 권위 의식 없는 근무 환경이 기억에 남습니다.

심진규_ 면세사업팀 팀장님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업무 조언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생 멘토링까지 해주셨습니다. 꼭 다시 후배로 입사해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Q 청룡의 해, 원하는 목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심진규_ 인턴 기간 중 '선배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에 꼭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알려주신 것들 잊지 않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업 스텀리를 이끌어보려 합니다.

김시아_ 매일 인천국제공항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주요 이슈를 정리해 취업 노트를 작성하며 준비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입 사원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

TRAVELER EVENT



2024 청룡의 해, 재기 발랄 나만의 N행시

2024년을 맞이하면서 인천국제공항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다. 긍정과 희망 가득한 새해 소망을 공개한다.

청 춘의 가장 큰 무기는
 룡(용) 기!!! 지금 당장 배낭 메고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을 시작해보요.
 @tw★★★★★_★y★ju★o★

여 행을 위해 손꼽아 기다려온 나날들, 인천공항과 함께
 행 복한 순간만을 가득 담아 돌아올게요.
 @kw★★★★★99

인 생에서 여행은 최고의 선물이죠~
 천 생연분과 함께 여행을 하기 위해~
 공 항을 방문하고 수속을 밟다 보면~
 행 상 설렘 가득 행복이 넘쳐나죠~
 @ki★★★★★1

인 생 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인천국제공항에
 천 번을 방문해도 설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 항에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행이기에
 행 상 든든한 인천국제공항. 2024년도 잘 부탁해요!
 @j★★★★★

여 기서 만날까??!!
 행 선지가 어디든 설레는 이곳, 인천공항 ^^
 @na★★★★★_c★o

인 천공항에 오면
 천 천히 즐겨보세요
 공 항이 주는 작은 행복은
 행 상 다음 여행의 설렘을 선물해요
 @eu★★★★★k

여 기야 여기
 행 복을 찾아 떠나는 입구
 #인천공항
 @no★_★★n★

연간 여객 1억 명 시대를 준비하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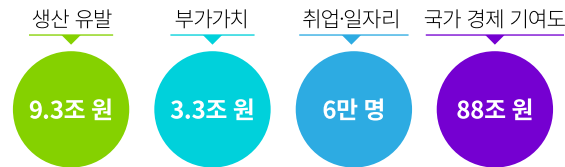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항공 시장 우위 선점을 위한 4단계 건설 사업을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공항, 문화·예술 공항, 친환경 공항을 위해 2021년 6월 운영 개시한 제4활주로와 제2터미널 확장 등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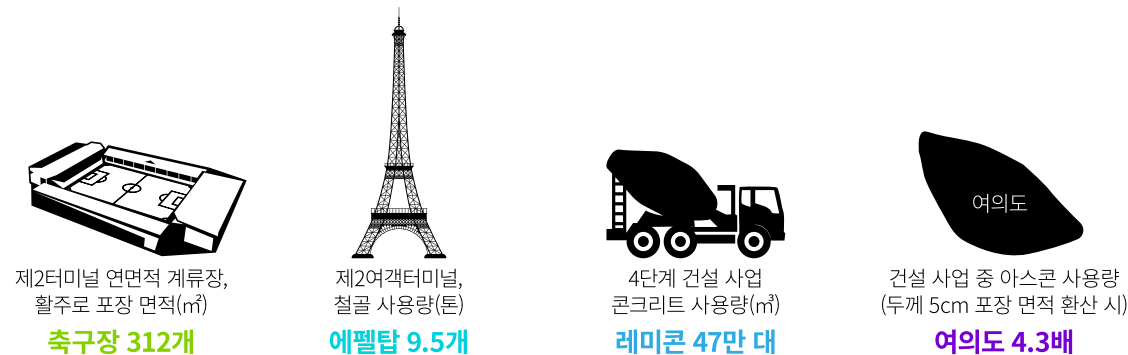
<공항 운영·수용 능력>



<경제적 파급효과>



<4단계 건설 사업 규모>



4단계 확장,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인천국제공항은 정부의 국제선 운항 규제 전면 해제와 함께 여객 수요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현재 하루 최대 약 20만 명의 여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2024년 인천국제공항 연간 여객 수요는 코로나19 이전 여객 수준(2019년 연간 여객 7100만 명)을 회복할 전망이며, 2026년에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인 7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첫 삽을 뜬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은 4조 8405억 원을 들여 제2여객터미널 확장과 3750m의 제4 활주로 신설, 수하물 처리 시스템 43km 확장, 제2교통센터 증축, 계류장 및 연결 교통망 확충이 포함된다.

2024년 말 4단계 건설 사업이 완공되면 현재 연간 여객 7700만 명 수용 능력에서 1억 600만 명으로, 항공기 이착륙도 연간 50만 회에서 60만 회, 항공 화물 처리도 연

간 45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각각 늘어난다.

공항 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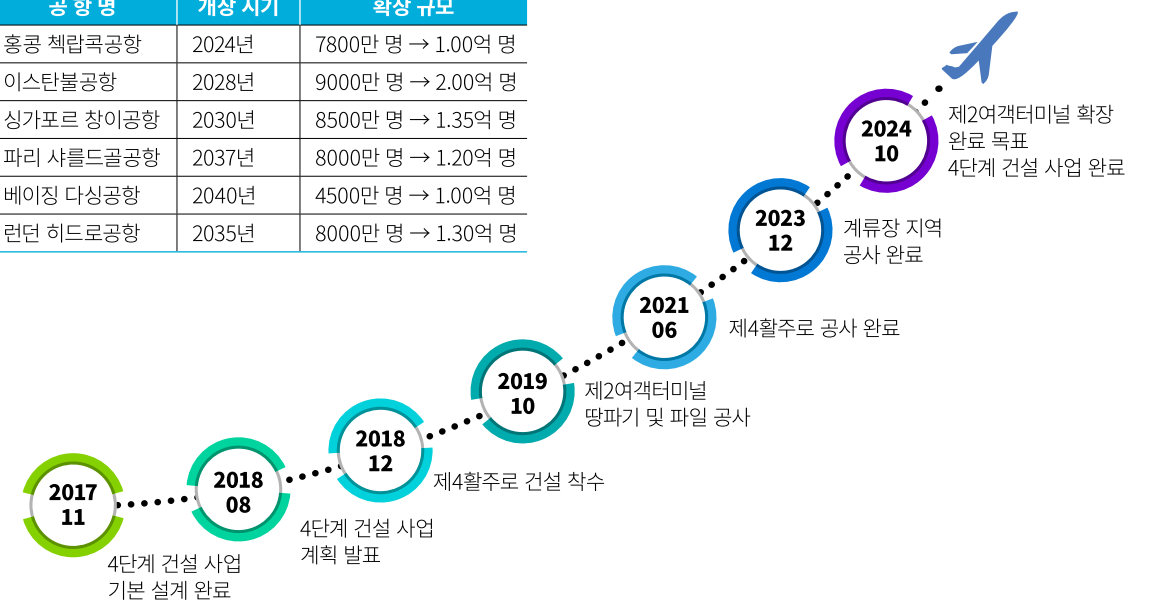
현재 해외 경쟁 공항들 역시 글로벌 공항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개발 및 확장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항 인프라 특성상 적기에 인프라를 확충하지 못할 경우 주변 공항으로 수요 이탈이 발생하게 되고, 이후 경쟁 우위를 다시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팬데믹 이후 빠른 항공 수요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초로 국제 여객 5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을 2개 보유하게 돼 국제선 기준 이스탄불공항, 두바이공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공항, 인프라 적기 확충을 통해 동북아 1위 허브 공항으로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해외 주요 경쟁 공항 확장 계획>

공항명	개장 시기	확장 규모
홍콩 첵랍콕공항	2024년	7800만 명 → 1.00억 명
이스탄불공항	2028년	9000만 명 → 2.00억 명
싱가포르 창이공항	2030년	8500만 명 → 1.35억 명
파리 샤를드골공항	2037년	8000만 명 → 1.20억 명
베이징 다싱공항	2040년	4500만 명 → 1.00억 명
런던 히드로공항	2035년	8000만 명 → 1.30억 명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사업 타임라인>



업-그레이트(Up-Great)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은 4단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 서비스 고도화, 안전·쾌적한 공항 시설, 신속·편리한 서비스,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보안 등 업그레이드를 넘어 업-그레이트 공항을 지향한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4단계 건설 사업의 공정률은 82.9%로 당초 계획에 따라 마무리 단계로 돌입하고 있다. 2024년 4단계 건설 사업의 완료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래 최대 항공기 운항 횟수가 전망되며, 신규 취항을 타진하는 외국 항공사가 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2024년에는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사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 만큼, 업그레이트된 공항 시설을 바탕으로 공항 이용객에게 인천국제공항만의 차별화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변화될 인천국제공항

2024년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초 국제 여객 5000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여객터미널을 2개 보유하게 되어 국제선 기준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으로 성장한다.

지난해 신설한 제4활주로 덕분에 시간당 운항 횟수가 90회에서 107회로 증가했고, 여객 주기장 또한 163개소에서 225개소로 확장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확충되는 연결 교통망을 통해 여객터미널 접근도 쉬워진다. 제2교통센터 단기 주차장 증축 및 장기 주차 빌딩 건설로 주차면 1만 2030개(현재 7446면)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4단계 운영·사업 관리>

고도화

BIM 기반 설계 구현
설계, 간섭, 동선,
공정 검토 수행

전문화

전문가 POOL
국내외 공항 건설
전문가 풀 운영

효율

PMIS 구축
(종합 사업 관리 시스템)
사업의 효율적 관리, 향후
해외 사업 활용

안전 품질

안전 경영 시스템, ISO
9001 안전관리협의회,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
KOSHA 18001 심사 품질
경영 시스템에 의한 건설
품질 관리

조정

인터페이스 협의체
전담 조직 구성(4단계
운영 준비 TF단)



<4단계 확장, 차별화된 혁신 공항>

스마트 혁신 공항

- 스마트패스 본격 도입 : 생체 인증 기반으로 수속 시간 단축, 공항 혼잡 완화
- 비대면 출국 서비스 : 셀프 체크인, 셀프 백드롭 채널 확충
- 스마트 보안 검색장 구축 : 출국 검색 시 최첨단 기술 접목해 간편하지만 정확한 검색 가능
- 스마트 시큐리티 구현 : 터미널 곳곳에 AI 기술 접목한 CCTV 설치
- 스마트 계류장 관제 플랫폼 : 관제사의 시각지대를 해소해 운항 안전 향상
- 원격 접현 시스템 적용 : 세계 공항 최초 탑승교 중앙 집중형 원격 조작

문화·예술 공항

- 키네틱 조형물 설치 : 실시간 세계 날씨 데이터에 따라 연출되는 작품
- 드론 오브젝트 : 자율 주행 기술 적용으로 여객에게 다채로운 경험 제공
- 대형 미디어 아트 : 출입국장에 설치해 3D 기반 실감형 콘텐츠 제공

녹색 탄소 중립 공항

- 제2여객터미널 에너지 고효율 설계 : 1등급 녹색 건축 예비 인증 취득, 글로벌 RE100 가입
- 에어사이드 100% 친환경 장비 : 2030년까지 에어사이드 지역 내 디젤 조업 장비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 친환경 충전 인프라 확충
- 옥외 정원 : 국내 공항 최초, 에어사이드 지역 옥외 정원을 한국 전통 콘셉트로 조성 예정

다시 보는 인천국제공항 1~3단계 건설 사업 속성 학습



>> 제1여객터미널 | 제1·2활주로 건설

1단계
1992~2001

1992년 11월 12일,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공항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되었다. 1996년 5월 23일 제1여객터미널 착공(기공식) 이후 8년 4개월 만인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했다.

>> 탑승동 | 제3활주로 건설

2단계
2002~2008

2단계 오픈으로 새로운 탑승동이 추가돼 여객 동선과 출입국 소요 시간이 단축되었고, 공항 운영 효율성도 극대화됐다. 또한 아시아 최초 CAT-IIIb 운영,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개장, 누적 화물 1000만 톤 돌파 등 세계 최정상급 공항으로 도약했다.

>> 제2여객터미널 건설 | 항공기 계류장 확충

3단계
2009~2017

제2여객터미널은 최첨단 IoT 및 AI 기술을 갖춘 스마트 공항,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아트 공항,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경험하는 그린 공항으로 여객을 맞이한다. 또한 제2교통센터와 공항 철도 개통으로 편리함을 더한다.

3단계 건설 사업(2009~2017)

<p>사업비</p> <p>4조 9000억 원</p>	<p>연간 운항 처리 능력</p> <p>36만 회 운항</p>
<p>연간 여객 처리 능력</p> <p>2300만 명</p>	

2단계 건설 사업(2002~2008)

<p>사업비</p> <p>2조 9000억 원</p>	<p>연간 운항 처리 능력</p> <p>17만 회 운항</p>
<p>활주로</p> <p>제3활주로</p>	<p>연간 여객 처리 능력</p> <p>1400만 명</p>

1단계 건설 사업(1992~2002)

<p>사업비</p> <p>5조 6000억 원</p>	<p>연간 운항 처리 능력</p> <p>33만 회 운항</p>
<p>활주로</p> <p>제1·2활주로</p>	<p>연간 여객 처리 능력</p> <p>3000만 명</p>

떠나요, 이야기로 만나는 인천국제공항 주변 섬 여행



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섬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인천국제공항은 바다를 메워 만든 거대한 인공 섬을 기반으로 한 해상 공항인 만큼 공항과 이웃한 서해안 일대에선 기가 막힌 풍경을 선사하는 다수의 섬을 만날 수 있다. 알수록 재미있는 섬들의 각기 다른 모습과 다양한 유래를 가진 섬 지명까지 알아봤다.

글. 류창희 일러스트. 김가빈

©황용하



영종도

인천 중구 영종도 일대

제비가 많은 섬, 영종도

국내에서 여섯 번째로 넓은 섬. 인천국제공항이 이곳에 있다. 영종도는 <고려사>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자연도(紫燕島)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제비가 많은 섬’이라는 뜻이다. 대동여지도에는 자연도와 영종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작은 섬이었던 영종도가 자연도와 연결되면서 지금의 영종도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섬 중앙에 솟은 백운산에는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고찰 용궁사가 있다. 용궁사는 조선 시대 흥선대원군과 인연이 있는 사찰로, 근래 들어 백제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대단위 군집 촌락의 형태와 토기, 돌 활촉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 인천 중구 운남동 671-3



용유도

바다에서 헤엄치는 용의 섬, 용유도

바다에서 헤엄치며 노는 용의 모습을 닮아 붙은 이름 용유도.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영종도와 신불도, 삼목도 사이를 매립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용유도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통해 서울 도심 및 수도권과 빠르

게 연결되어 주말 나들이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을왕리해수욕장부터 선녀바위까지 2.1km에 걸쳐 이어진 문화탐방로는 용유도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 인천 중구 용유동



삼목도



조름섬

물이 드나드는 세 갈래의 길목, 삼목도

운서동에 있던 삼목도는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삼목은 '세 그루 나무'를 의미하지만 '드나드는 목이 셋'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보인다. 흔적만 남아 있는 삼목도 자리에는 섬의 역사를 보여주는 삼목도 선사 주거지가 있다. 서울 암사동 유적 다음으로 큰 신석기 주거지로, 새해 도서 지역에서 발견된 최대 규모의 유적이다. 인천광역시기념물 제55호로 지정되어 있다.

📍 인천 중구 자유무역로 191

즐고 있는 사람을 닮은 섬, 조름섬

나만 알고 싶은 조용한 섬을 찾는 이들에게 최적의 섬. 하루에 두 번 썰물 때를 맞춰 가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무인도로, '마시안 해변의 기적'이라 부른다. 만조 때에는 완전한 섬 형태를 하고 있지만 간조 때에는 바닷길이 열리며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 섬 전체를 둘러보는 데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섬이라 부담 없이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 인천 중구 덕교동 산104

🌴 인천 중구 무의도 일대

장수가 춤을 추는 섬, 무의도

섬 형태가 장군복을 입고 춤을 추는 것 같아 무의도라 부르기 시작했다. 나란히 있는 섬 중 큰 섬을 대무의도, 작은 섬을 소무의도라 부른다. 과거에는 배를 타야만 갈 수 있었으나, 2019년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차량 접근이 가능해졌다. '무의도 세렝게티'라 불리며 백패킹 성지로 인기 있다. 특히 실미해수욕장에서는 썰물 때 바닷길이

열려 실미도까지 걸어갈 수 있다. 또 하나개해수욕장에서는 호룡곡산, 국사봉 등의 등산까지 즐길 수 있다

📍 인천 중구 무의동

잠길 듯 말 듯한 섬, 잠진도

영종도와 무의도를 이어주는 무의대교 중간에 위치한 작은 섬. 밀물 때 물이 차오르면 섬이 잠길 듯 말 듯한다고 해 잠진도라고 이름 붙었다. 매우 작은 섬으로, 오래전에 연륙교가 놓여 현재는 실제로 섬이 아니다. 갯벌을 붉게

물들이는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찾는 사람이 많다. 물이 빠진 뒤에는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사람도 많으며 낚시인들에게는 꽤 알려진 낚시 포인트이기도 하다.

📍 인천 중구 잠진도길 144

숫자 팔을 닮은 섬, 팔미도

인천 중구에 위치한 무의도에 속하는 작은 섬. 무의도와 팔미도가 어우러진 모습이 '여덟 팔(八)' 자와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청구도에는 '팔미'라는 지명으로, 대동여지도에는 '팔산'이라는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군사보호구역이라 오랫동안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다가 2009년부터 개방되었다. 1903년 한국 최초로 세운 등대인 팔미도 등대가 있는데 인천상륙작전 시 이정표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팔미도 등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은 환상적이다. 팔미도 등대에는 등대역사관, 천년의 광장 등이 있으며 관람 후에는 팔미도 등대 둘레길을 탐방할 수 있다.

📍 인천 중구 팔미로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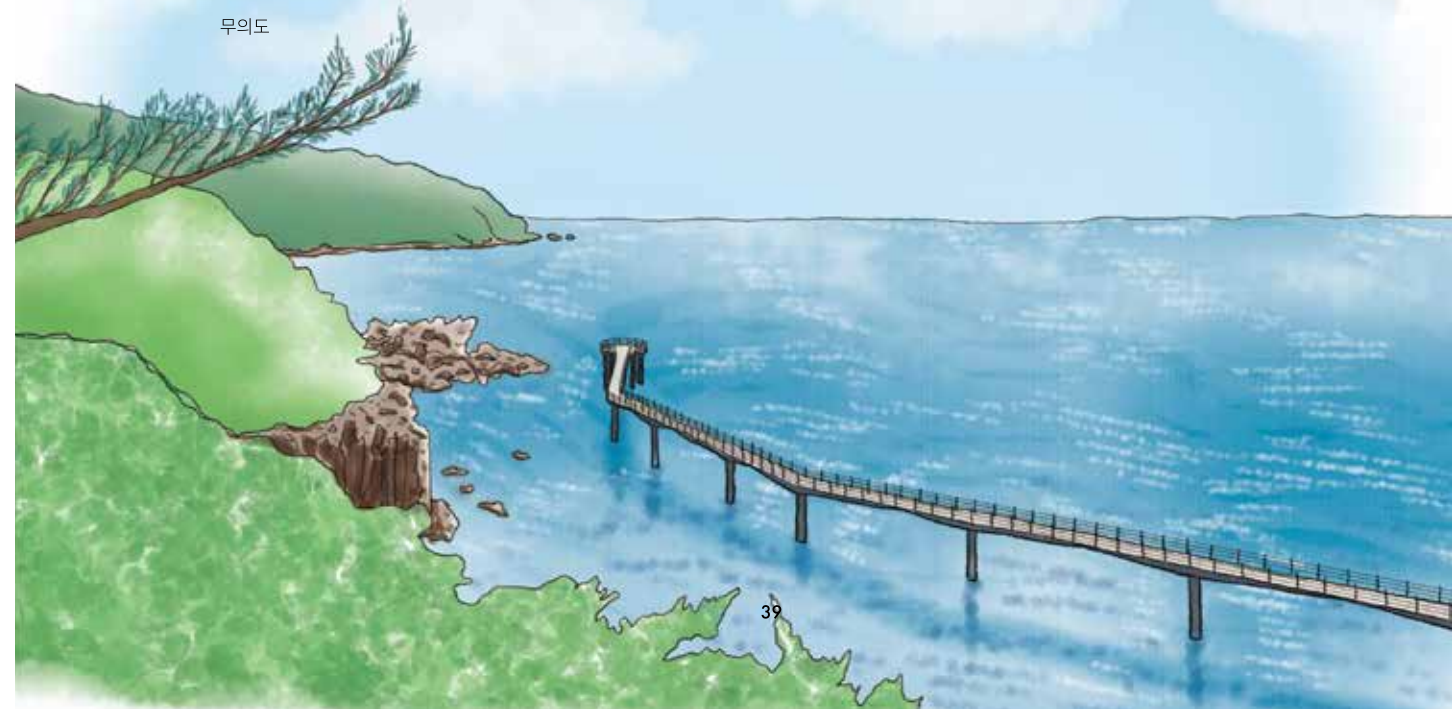


팔미도



잠진도

무의도





승봉도

인천 옹진군

봉황이 하늘로 올라가는 섬, 승봉도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조용한 섬, 승봉도는 지형이 봉황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섬이 크지 않아 트레킹이나 자전거 여행하기에 좋다. 해안 산책로 주변으로 자생 해송림이 넓게 분포되어 산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쫓대바위와 남대문바위 등을 만날 수 있다. 섬 남쪽에 위치한 이일레해변은 백사장의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낮아 물놀이하기 좋다.

📍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장봉도

긴 산봉우리의 섬, 장봉도

옹진군 북도면에 딸린 섬. 지명은 섬 형태가 길고 산봉우리가 많은 데에서 유래했다. 이 섬에는 인어 청동상이 있는데 바다를 등지고 장봉도를 바라보는 인어상에 관한 전설이 있다. 한때 장봉도 어장은 우리나라 3대 어장에 속했다. 옛날에 한 어부가 낚가지 어장에서 그물에 걸린 인어를 측은하게 여겨 다시 바다로 보내줬는데 그 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며 장봉도 사람들은 이를 인어의 보은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덕적도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섬이다. 덕적도라는 이름은 ‘큰 물섬’이라는 우리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물이 깊은 바다에 있는 섬이라는 뜻이다. ‘큰 물섬’이 한자화되면서 덕물도가 되었고, 다시 덕적도로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이곳 주민들은 ‘큰물이’ 혹은 ‘덕물도’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어업 못지않게 관광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포리해변 뒤편의 소나무 삼림욕장에는 200년 된 노송이 높게 솟아 있으며 섬 주변의 비조봉은 신비한 풍경을 선물하는 명소다.

📍 인천 옹진군 덕적면 진리



덕적도



자월도

붉은 보름달의 섬, 자월도

보름달이 유난히 붉고 아름다워서 자월도라 불리게 된 섬. 자월도로 향하는 여정에서 가장 먼저 발을 내딛게 되는 곳의 이름 역시 달바위선착장으로, 2개의 초승달을 형상화한 선착장 입구가 인상적이다. 선착장 반대편에 있는 작은 해변의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해발 166m의 국사봉 산책도 좋다.

📍 인천 옹진군 자월면

옆드린 사람의 형상을 한 섬, 굴업도

대동여지도와 청구도에 기록이 남아 있는 굴업도는 ‘한국의 갈라파고스’로 불린다. 섬 대부분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불빛이 적어 여름밤에는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어 캠핑족이 많이 찾는 곳이다.

📍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수목이 무성한 큰 섬, 대청도

다양한 어종의 수산물이 풍부하고, 섬 전체가 낚시터로 유명한 섬. 대청도에서 눈길을 끄는 곳은 사막과 같은 이국적 풍경이 펼쳐지는 옥죽포 부근 모래언덕이다. 서해의 거대한 겨울 파도가 옥죽동 해변으로 밀려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모래가 쌓여 지금의 모래언덕으로 변한 것이다.

📍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굴업도



대청도

선녀가 춤추는 섬, 선재도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선녀가 내려와 춤을 추던 곳이라 하여 선재도라 부르게 되었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소우도로 불리다가 1871년 전후에 선재도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연초에 당고개에서 굿을 하여 마을의 풍어와 풍작을 기원하며 촌락의 재앙을 몰아내고 있다.

📍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선재도



미법도



석모도

인천 강화군

검열이 끝나는 섬, 미법도

강화군 석모도에 딸린 섬이다. 옛날 서검도에서 한강 하류를 통해 한양으로 가는 선박을 검열했는데 미법도에서 검열이 끝난다고 하여 ‘그칠 미(彌)’, ‘법 법(法)’ 자를 사용하여 미법리라 부른 데에서 지명이 유래했다. 고려 시대에 창건한 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이후 재건한 미법사도 둘러볼 만하다.

📍 인천 강화군 삼산면 미법리

글을 올리는 섬, 주문도

강화군 서도면의 아름다운 섬. 조선 후기 임경업 장군이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 이 섬에서 한양에 있는 임금에게 하직의 글을 올렸다고 하여 ‘아힐 주(奏)’, ‘글월 문(文)’



주문도

자 를 써서 주문도(奏文島)라 불렀으며 나중에 물 가운데 섬에서 글을 올렸다는 뜻의 주문도(注文島)로 지명이 바뀌었다고 한다. 해당화가 만발한 아름다운 주문도를 보고 싶다면 5월경에 찾아가볼 것.

📍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돌 모퉁이 섬, 석모도

강화대교와 초지대교가 있어 찾는 이들이 많다. 백사장 길이가 1km에 달하는 민머루해수욕장에서 갯벌 체험과 캠핑이 가능하며, 인근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다낚시도 즐길 수 있다. 관음성지로 이름난 보문사에서 눈썹바위에 새겨진 마애관음좌상이 유명하며,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일품이다. 전등사, 정수사와 함께 강화의 3대 고찰이기도 하다.

📍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누런빛의 산봉우리가 솟은 섬, 황산도

강화도의 부속 섬. 강화나들길 8코스를 걷다 보면 강화도에 딸린 여러 부속 섬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황산도를 만나게 된다. 작은 포구와 섬마을, 예쁜 카페와 예술극장, 캠핑장이 여럿 있어 여행하기 좋은 섬이다. 특히 황산도 앞에 떠 있는 작은 무인도 일대의 갯벌 풍경은 사진가들

의 인기 출사지로 알려져 있다.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인천 서구

가늘고 긴 섬, 세어도

1970년대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섬. 세어도는 ‘가늘고 긴 섬’이라는 뜻이며, 서쪽에 떨어져 있는 섬이란 의미로 서천도라고도 부른다. 지금보다 조선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경관의 보존 상태가 좋으며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어촌 마을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인천 서구 세어로 2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9개의 봉우리가 있는 섬, 구봉도

간척으로 연륙화된 섬으로 9개의 아름다운 봉우리가 있다고 하여 구봉도라 불린다. 대부분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에 있는 대부분 해솔길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해안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개미허리아치교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보는 낙조 풍경은 가히 압도적이다.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분동

신선이 목욕하던 섬, 선감도

대부도 동남쪽에 위치한 섬. 북서쪽은 간척 사업을 통해 대부도와 연결되었고, 남쪽은 탄도와 연결되었다. 옛날에 속세를 떠나 선경에 살며 구름과 학을 벗 삼아 지내던 신선이 내려와서 정한수로 목욕을 했다 하여 선감도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황산도



세어도



구봉도



선감도

청룡의 해, 용의 눈으로 보라



새해 트렌드를 예측하는 수많은 책 중 가장 익숙한 <트렌드 코리아 2024>가 내놓은 10개의 키워드와 부제 ‘드래곤 아이즈’에 대해 알아봤다.

글. 류창희 사진. 셔터스톡, 언스플래쉬



<트렌드 코리아>는 새해의 띠 동물이 들어가는 10글자의 영어 부제에 맞춰 10개의 키워드를 선정한다. 올해에는 용의 눈을 의미하는 ‘드래곤 아이즈(DRAGON EYES)’를 부제로 선정했다. 아무리 멋지게 용을 그려도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려 넣지 않으면 용이 아니라는 ‘화룡점정’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AI 시대에 용의 눈동자를 그려 넣는 사람이 되자는 의미를 담아 ‘드래곤 아이즈’를 타이틀로 선정한 것이다. 모든 책이 ‘AI’와 ‘챗GPT’를 얘기하는 이 시점에 <트렌드 코리아 2024>는 인간의 역할 혹은 역할에 주목했다. AI는 자신이 내놓은 결과물을 평가할 수 없다. 그것에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물을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2024 키워드 DRAGON EYES

- D** 분초 사회(Don't Waste a Single Second: Time-Efficient Society)
- R** 호모 프롬프트(Rise of 'Homo Promptus')
- A** 육각형 인간(Aspiring to Be a Hexagonal Human)
- G**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Getting the Price Right: Variable Pricing)
- O** 도파밍(On Dopamine Farming)
- N** 요즘 남편, 없던 아빠(Not Like Old Daddies, Millennial Hubbies)
- E** 스피노프 프로젝트(Expanding Your Horizons: Spin-off Projects)
- Y** 디토 소비(You Choose, I'll Follow: Ditto Consumption)
- E** 리퀴드폴리탄(ElastiCity. Liquidpolitan)
- S** 돌봄 경제(Supporting One Another: 'Care-based Economy')

시간의 가성비, 분초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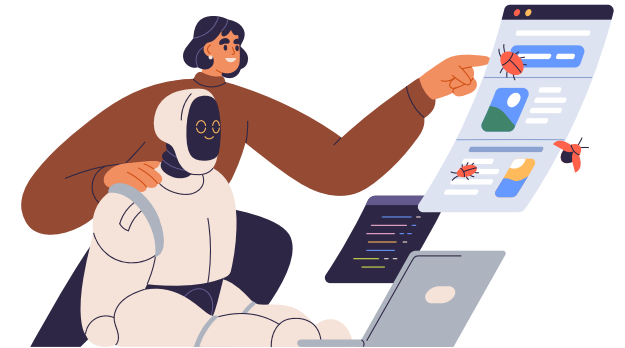
분초 사회는 시간의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려는 트렌드를 일컫는다. 1분 1초를 아끼워하는 사람이 늘었으며, 많은 사람이 강의를 들으며 핸드폰을 만지고 신문을 보는 등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을 선호한다. 그리고 10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1분 단위로 약속을 잡는 사람이 많다. 시간의 가성비를 극도로 중요시하며 사용 시간의 밀도가 매우 높아졌다.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썼다면, 이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화룡점정의 역량은 인간에게, 호모 프롬프트

호모 프롬프트는 자신이 보유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고양하는 방법으로 AI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 인공지능이 절대 대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예술 분야까지 범위를 넓혔다. 진짜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은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벽히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결과물을 판단하여 보다 발전하고자 하는 호모 프롬프트의 역량이 더욱 중시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앞으로 AI와 대응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육각형 인간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 모든 측면에서 약점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육각형 인간. 헝사곤 그래픽의 기준 축이 끝까지 차서 정육각형을 만드는 이미지에서 비롯되었다. 타고난 집안, 외모, 능력, 직업, 학벌, 성격, 특기 같은 모든 요소에 점수를 부여해 순위를 매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SNS의 발달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쉬워졌지만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은 훨씬 어



려워졌다. 어차피 닿을 수 없는 목표라면, 포기를 즐기는 놀이이자 타인을 줄 세우기 위한 잣대로 활용한다.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버라이어티 가격은 정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같은 상품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비수기에는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거나 제품 출시 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을 인하는 것이다. 이렇듯 ‘버라이어티’한 가격 책정 전략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났다. 공급자와 유통자는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제품의 가치를 철저히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버티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도파민을 좇는다, 도파밍

도파민과 파밍을 결합한 말로, 도파민이 분출되는 행동이라면 뭐든 시도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특정한 목적이나 의미가 없어도 그냥 재미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점점 자극적인 쾌락을 좇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자극적인 쇼트 폼 콘텐츠가 범람하는 오늘날 도파밍은 피할 수 없는 추세다. 도파밍을 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알 수 없는 랜덤한 상황에서 짜릿함을 느끼거나 상식 밖의 상황에서 일탈 행동을 하며 해방감을 느낀다.



6시 신데렐라, 요즘 남편 없던 아빠

결혼 후 남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달라졌다. 맞벌이가 일상화되고 가사 노동 부담이 당연해지는 가운데, 아내의 소득이 높다면 기꺼이 가정의 역할을 넘기고 내조할 준비가 돼 있는 남성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양육서를 함께 공부하고 유아용품을 고르며,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시에 바로 퇴근하는 6시 신데렐라를 자처한다.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 스피노프 프로젝트

스피노프는 주로 콘텐츠 산업에서 어떤 특정한 원작에서 파생되어 나온 작품을 지칭하며, 영화나 드라마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특히 브랜드 스피노프는 대상을 넓히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유연하게 변화시킨다.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는 본업 스피노프를 통해 부업을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실패의 두려움을 줄이는 소비, 디토 소비

인플루언서, TV 콘텐츠 등 특정 대리체가 제안하는 선택을 추종하는 소비를 뜻하는 디토 소비. 나의 가치관에 맞는 대상을 찾고, 의미를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주체적 추종을 뜻한다. 단지 제품력만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철학·관점·취향을 담은 '시그너처' 상품이나 브랜드가 디토 소비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기함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유연 도시, 리퀴드폴리탄

도시의 유연한 변화. 콘텐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사람들이 이동하며 서로 교류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액체'란 뜻의 리퀴드는 도시가 액체처럼 흘러넘치고 유동적인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한다. 리퀴드폴리탄은 대규모로 '짓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주체들을 '잇는' 일련의 프로젝트다.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이 시대에 리퀴드폴리탄은 새로운 해법이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 돌봄 경제

앞으로 약자에 대한 돌봄 시장이 커지며 특히 로봇 등 기술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시대의 도래 등으로 앞으로 돌봄 경제 규모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기존에는 고령자나 영유아 등 사회적 약자만 돌봄을 받았다면 미래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청년층의 마음을 돌보고, 일반 사람들이 일상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게 돌보는 서비스를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돌봄 경제는 이제 엄청난 정책적, 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지는 현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쟁점이 될 것이다. 📍



떠나자, 어디든 2024 여행 트렌드

지겹도록 이어진 팬데믹의 종료와 함께 보복성 여행을 떠난 2023년이 가고 2024년 새해가 밝았다. 마음 편히 훌쩍 떠날 수 있게 된 2024년, 여행업계에서 다양한 여행 트렌드를 공개했다.

짧은 기간 내 가까운 곳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S.O.F.T

제주항공이 2024년 여행 트렌드 키워드로 'S.O.F.T'를 제시했다. 짧은 이동 거리와 여행 일정(Short), 자주 떠나는 여행(Often), 언제든 자유롭게(Free), 여행을 부르는 계기(Trigger)가 뚜렷하다는 것. 짧은 기간 내 가까운 곳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여행을 떠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2024년에도 일본,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미나 흥미 요소를 계기로 여행을 떠나고 본인의 관심사를 위해서는 비용 지출도 마다하지 않는 여행 형태가 전 연령대로 확산하고 있다. 해외여행이 더 이상 큰마음 먹고 떠나는 것이 아닌, 계기만 있다면 언제든 쉽게 떠나는 여행 형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 대세는 취향에 맞춘 다양한 목적지 D.R.A.G.O.N

아놀자는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새로운 여행 트렌드 'D.R.A.G.O.N'을 발표했다. 여행 심리 회복 가속화(Ditto-Want to Travel), 여행지의 다양화(Region-Wide Travel), 트래블 테크의 발전(AI Innovation for Travel), 문화생활 니즈 확대(Gleeful Lifestyle), 여행 준비 간편화(One-Stop Travel), 여행 커뮤니티 활성화(Networking) 등 여섯 가지 키워드를 핵심 트렌드로 꼽았다.

2024년에도 여행에 기술을 접목한 트래블 테크가 빠르게 확산할 전망이다. 트리플은 일정 추천 기능에 AI 기반 언어 모델인 GPT를 연동해 개인별 맞춤형 여행 정보를 요약, 제공하고 있다. 여행은 물론 공연, 레저 등 여가 산업의 회복세에 따라 문화생활에 대한 니즈도 커질 전망이다. 이제 여행도 공유의 시대다. 트리플의 '배낭톡'은 같은 지역의 여행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 여름 성수기 트래픽이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아놀자가 론칭한 여가 문화 커뮤니티 '노른자

클럽'은 11: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여행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커뮤니티를 통해 여행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트렌드가 확산할 전망이다.

즐거움과 환경을 챙기는, Sustainable Travel

2023년 2월, 부킹닷컴이 세계 여행자 3만 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향후 12개월 내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여행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미 꽤 많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여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회용 칫솔이나 슬리퍼를 없애거나 객실에 비치되었던 메뉴판이나 설명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호텔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호주의 한 리조트는 투숙객에게 생태 관광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객실에 TV, 전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며 맑은 날에는 재생 가능한 태양에너지로 리조트의 전력을 100% 공급한다고 한다.

특히 프랑스는 팬데믹 이후 국가 관광 산업 모델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델로 탈바꿈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지속 가능한 관광(tourisme durable)이라 명명한 이 정책은 경제, 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광 분야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부, 관광부, 경제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해 추진 중이다.



2023년 해외 여행 경험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한 유경험자와 해외 출국 무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대상

2023년 1월~10월 중 인천공항을 이용한 해외 출국자 및 해외 여행 무경험자

조사규모

온라인 패널 1,13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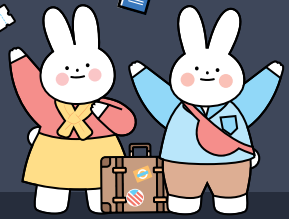
조사방법

온라인/모바일을 이용한 조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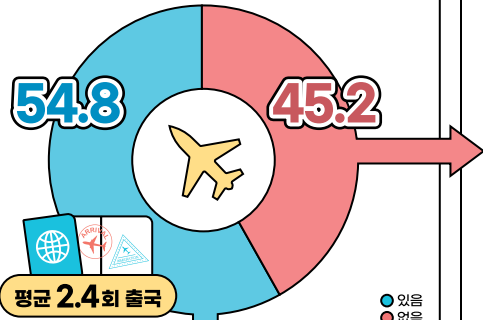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산업기술연구원

2023년 검은토끼에



2023년 해외출국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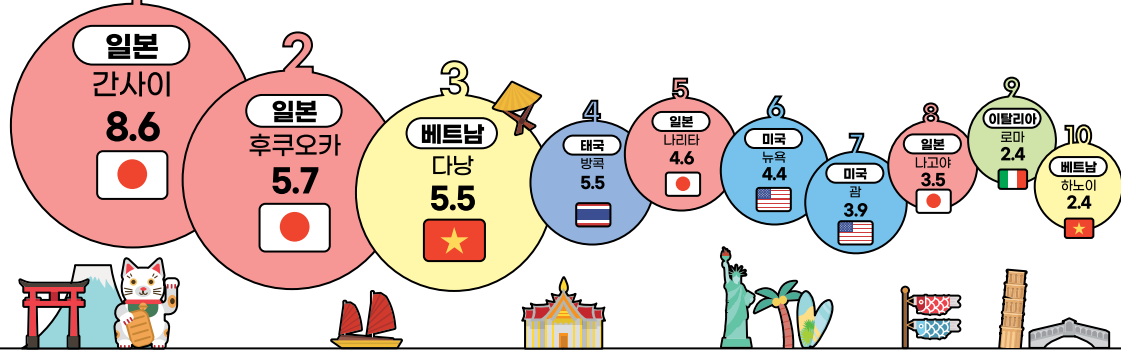
2023년 해외여행 안 간 이유 Top 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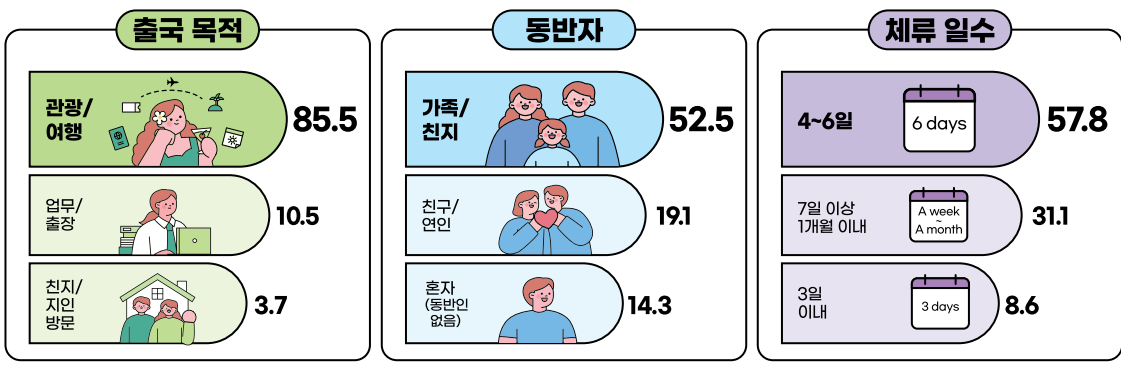
2023년 다녀온 해외여행지 Top1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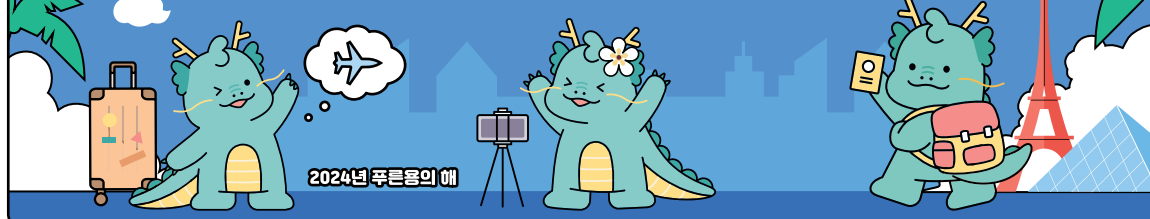
2023년 해외 출국 특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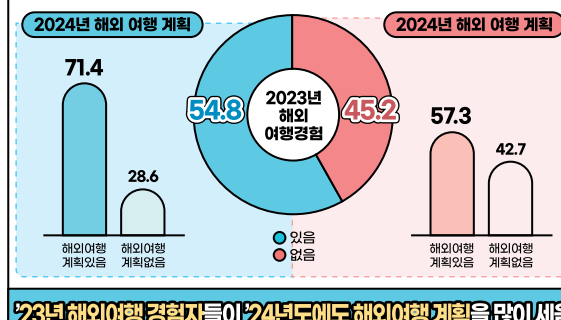
2024년 해외 여행 계획

2024년 푸른용의 에



2024년 해외여행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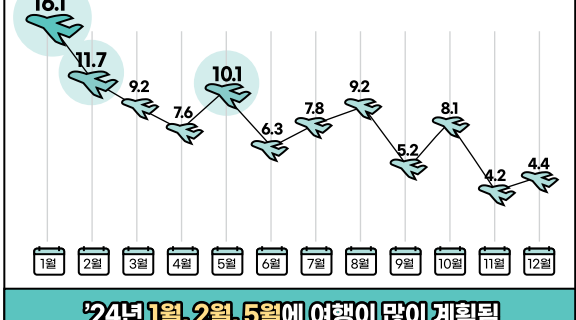
단위: %



'23년 해외여행 경험자들이 '24년도에도 해외여행 계획을 많이 세움

2024년 해외여행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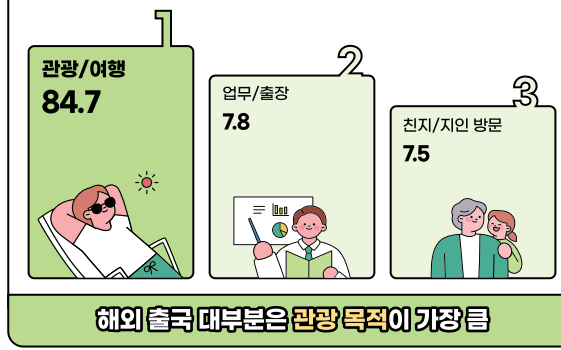
단위: %



'24년 1월, 2월, 5월에 여행이 많이 계획됨

2024년 해외 출국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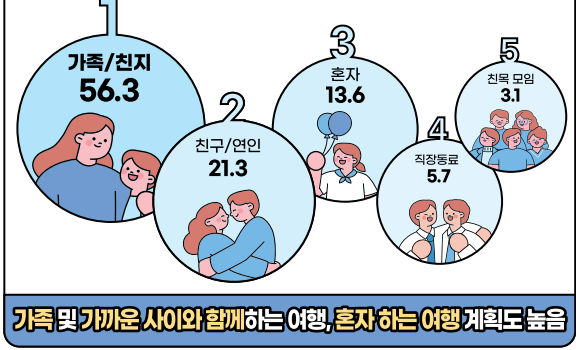
단위: %



해외 출국 대부분은 관광 목적이 가장 큼

2024년 해외여행 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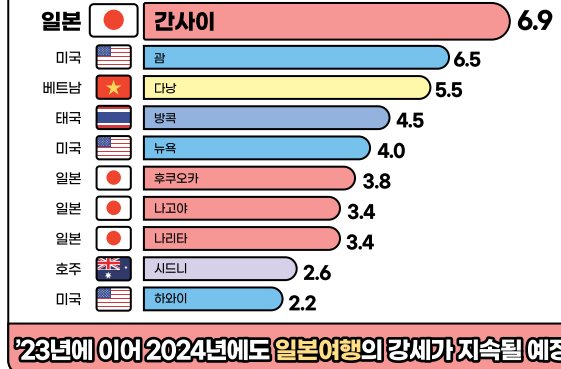
단위: %



가족 및 가까운 사이와 함께하는 여행, 혼자 하는 여행 계획도 높음

2024년 계획중인 해외여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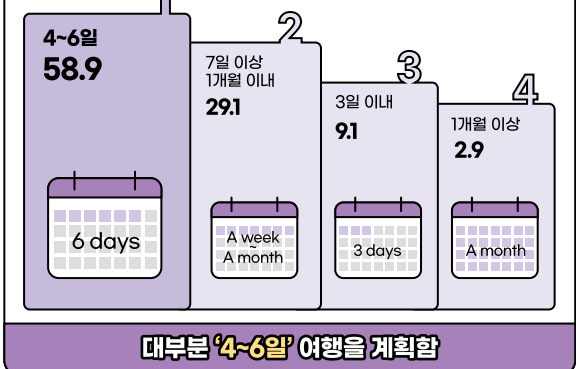
단위: %



'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일본여행의 강세가 지속될 예정

체류 일수

단위: %



대부분 '4-6일' 여행을 계획함

통념 대신 신념, 매달 열흘씩 여행하는 삶에 대해



어느 날 문득, 월요일 없는 삶이 궁금해졌다. 통념적인 워킹데이가 아닌, 신념적인 나만의 홀리데이가 필요해졌다.
떠나자! 매달 열흘씩 여행을 하는 여행책방 주인장의 이야기.

글·사진. 고윤경



교토 게이분샤 서점

처음에는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다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그러다 결국 또 월요일. 책이 한 권이라도 더 잘 팔리는 날을 꼼꼼히 체크해 이다지 정신없게 휴무일을 옮겨 왔지만 사실 이걸 애당초 틀러먹은 생각이었습니다. 책이 잘 팔리는 날 같은 건 없으니까요. 누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살뜰히 이름 붙여가며 '일주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 삶이 요일별로, 아니 정확히는 요일에 따른 매출별로 일희일비하게 하는 것인지.

갑자기 책 대신 이 요망한 요일을 불태워버리자는 결심이 섰습니다. 달의 움직임을 따라 20일은 빵을 굽고, 나머지 열흘은 여행을 떠나 새로운 재료와 생산자들을 만나며 작업의 영감을 얻는 삶을 택한 쓰카모토 쿠미의 <달을 보며 빵을 굽다>(더숲). 부랴부랴 책방 밑에 깔려 있던 책을 꺼내 들고 다시 읽어나가는 동안 나의 무능함

에 대한 자괴감이나 팔리지 않는 책들에 대한 분서갱유 욕구가 점차 수그러들며 누군가의 용감한 행보 덕분에 나까지 묘한 해방감을 맛보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도 겨우 버는 수준의 책방 주인이 꾸기엔 21일만 일하는 삶은 너무 원대하고 사치스러운 꿈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결심하고 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둘 다 안 되면 국수라도 끓여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인지라 벌써 한 달에 열흘쯤 살아보고 올 동네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대단한 결심인 척 책방 SNS 공지를 올립니다. "이제 책방은 매달 1일부터 21일까지 쉬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여행자로 살아볼 예정입니다"라고. 단골손님들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이용 방식에 불편해 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고, 주말 장사를 많게는 나홀이나 못하니 지나가다 우연히 들른 손님의 뒷모습에 실망이 가득할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생각보다 이 프로젝트를 유쾌하게 받아들여주셨고 다양한 분야의 손님들이 열흘간 비어 있게 될 책방을 대관해 월세에 보탬이 되어주는 방법들을 제안해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새로운 창작자, 무엇이든 시작해보고 싶은 사람을 비롯해 오롯이 책방을 서재로 즐기고 싶은 체크인 손님들을 위해 '오픈 더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 명상 모임, 일기 모임을 비롯해 브랜딩 워크숍, 하다못해 와인 파티까지 체크인은 제가 없는 시간 동안에도 열심히 이 공간으로 여행 오는 이들을 위해 분주합니다.

일 년을 버텨낼 용기와 영감을 채집하러 떠난 1월의 교토 여행을 시작으로 타이베이, 도쿄, 스페인, 치앙마이에서 매달 열흘 혹은 보름씩 지내며 2023년의 상반기기를 채워 갔습니다. 여행이 버거워지는 순간에는 떠나는 대신 익숙한 나의 동네에 책방 손님들을 초대해 여름방학을 보내기도 했지요. 다른 이들은 휴가를 떠나지만, 멈추는 것이 휴가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니. 상상만 하던 여행이 직업이 된 사람이 된 것 같아 하반기를 달려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곤 다시 런던과 파리, 로마로 이어지는 여름의 한복판을 보낸 유럽 여정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가열하게 21일을 일하고 열흘간 여행자로 살아냈습니다. 지난 여행 중 체크인의 운영 방식에 많은 영감을 주었던 도시 교토에 오래된 작은 집을 얻어 체크인 손님들을 초대하고 함께 여행했던 8월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여름방학 같은 천진한 날들이었어요. 이후 시칠리아 일주와 빈, 프라하, 부다페스트로 이어지는 동유럽에서 맞이한 이른 크리스마스 여행과 다시 한번 찾은 치앙마이까지 착실하게 매달 열흘간 이방인이 되어보았습니다.

이달의 여행지가 결정되면 책방엔 그달의 도시와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 어떤 여정을 보내고 올 예정인가가 담긴 큐레이션 노트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뒤, 여행을 하는 기간에도 책크인의 손님과 느슨하게 이어져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 '룸서비스'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여행 중 가장 마음에 든 사진과 영상을 골라 부러 SNS에도 올리지 않고 아껴두었다가 룸서비스를 신청하신 손님들께 제일 먼저 보내드립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배낭 가득 담아 온, 그 도시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가장 마음에 든 작은 기념품들을 곱게 포장하고, 떠나지 않고도 나의 여정을 함께 만끽할 수 있을 만한 책 한 권과 여행지 무드 물씬 나는 엽서에 짧은 안부 인사를 담아 소포를 보냅니다.

낭만은 고작 열흘뿐이고, 나머지 스무 날은 주로 정신없는 여행 흥신소 해결사였지만 통념 대신 신념을 택한 덕분에 제법 근사하고 낭만적인 한 해였습니다. 책크인은 올해도 이렇게 20일은 내내 불을 켜두고 열흘은 훌쩍 어디론가 떠나 그곳의 소식을 전합니다.

주로 피곤하고 그래도 종종 근사한 열흘살이 여행자 드림 🥰



교토 스쿨버스 커피샵 북카페



파리 갈리나니 서점



런던 사우스켄싱턴 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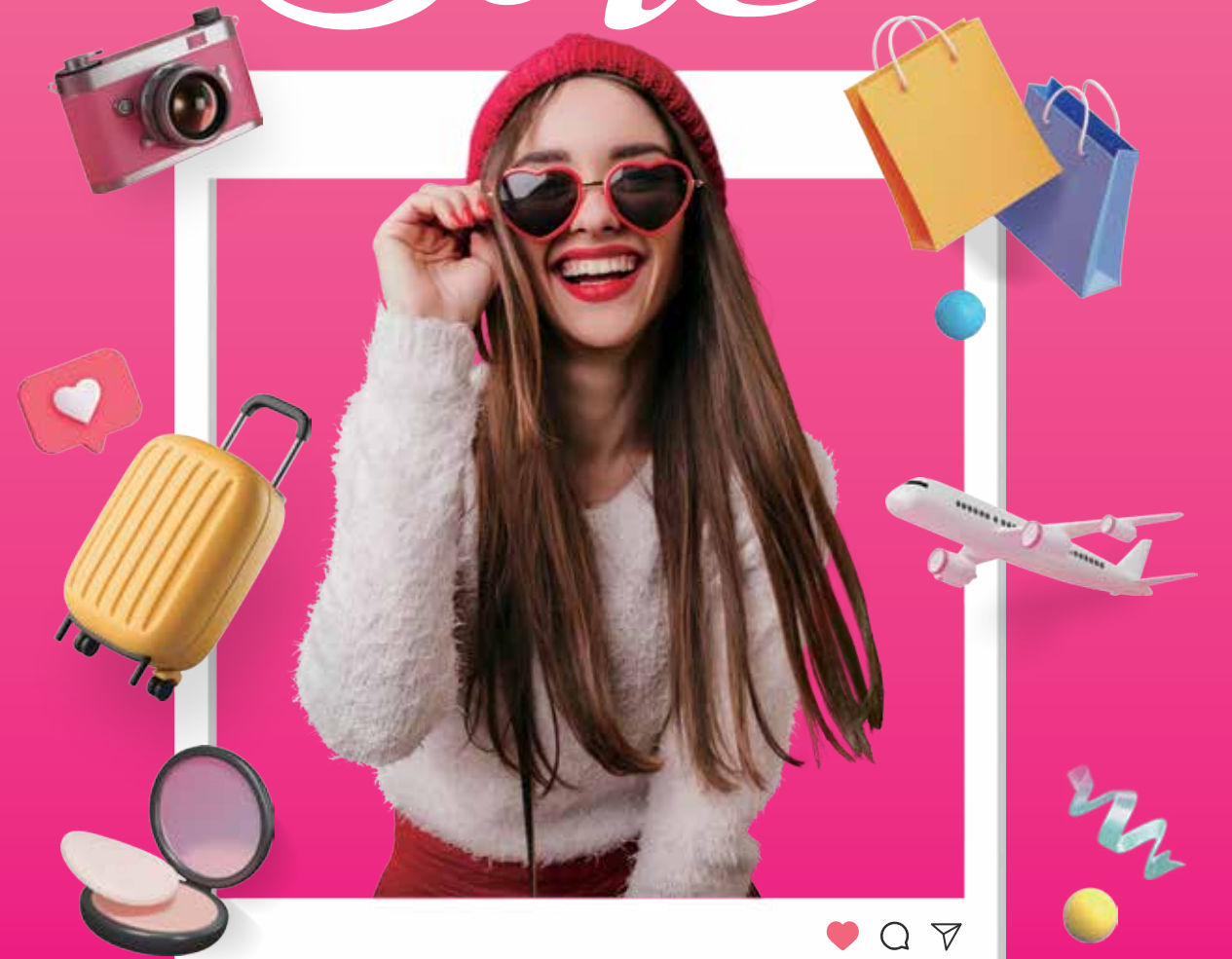


마드리드 거리 서점

글쓴이 고윤경 잘나가는 여행사 직원에서 여행 전문 책방 주인장으로 전업한 지 벌써 6년 차다. 지금은 연남동에서 책방 '책크인'과 고객 맞춤형 여행사 '고앤두트래블'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월간 여행자로 살아갈 계획이다.



Korea Grand Sale



Your Special Moment in Korea